

# 張保臯의 淸海鎮 設鎮에 관한 고찰

姜 祥 澤\*

## A Study on the Deployment of Chang Po Go's Cheong-Hea-Jin Basecamp

Kang, Sang-Taek

### 1. 머 리 말

고대국가로서의 신라는 3국 중 가장 후진국이였다. 신라의 3국 통일은 唐 세력의 작용에 의해 얻어진 결과이지만, 통일 이후의 신라사회와 문화는 정치·경제면에서 새로운 문화의 복합과정과 민족의 통합이라는 크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는 려·제의 통합으로 나타나는 전쟁의 종식에 따라 민족의 이동과 함께 각지의 産物과 교류의 확대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唐과의 활발한 교류는 문화적·경제적인 면에 큰 영향을 받았고, 이를 통해 국내의 산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신라의 변화는 당시 당으로 보낸 조공품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sup>

이와 같이 신라의 활발한 산업활동은 문무왕대(AD 668)부터 8-9세기에 걸쳐 수준 높은 조공품을 당에 보내고 있었다.<sup>2)</sup>

이는 장보고 출현 이전부터 신라의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즉 통일신라는 엄격한 골품제도를 중심으로 한 귀족사회가 구성되어있고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산업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금속공예, 직물공예 기술은 당의 수준을 능가하는 생산능력을 소유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신라 산업구조의 발달과 관련한 귀족들의 경제기반을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즉, 장보고 출현 이전부터 통일 신라는 당과의 조공무역을 이루어왔고 그에 따른 사무역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사무역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본 동대사, 정창원의 보물 중 신라와의 교역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보고의 출현전 8-9세기 한·중·일의 교역관계가 정립되어 있다는 것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이 論文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외국석학과의 공동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1) 『三國史記』卷七, 新羅本紀.七 文武王十四年條. 唐에 보낸 朝貢品은 朝霞紬, 魚牙紬, 鑲鷹鈴, 海豹皮, 金銀 등의 高級織物과 金銀 細工品 등이다.

2) 孫兌鉉, 『韓國海運史』, 亞成出版社, 1982 PP.44

은 신라의 산업 발전 없이 불가능하며 신라에서 제조되는 상품의 교환가치가 높았다는 점을 증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일본에 대한 공무역이든, 사무역이든 해상교통의 발전과 선박, 항해기술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미 헌덕왕 8년에 굶주린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178명이 중국 절동 지방으로 갔다는 기록<sup>3)</sup>을 통해서 선박과 항해기술이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신라의 산업기술의 발달과 해상교통의 발달은 병행하고 있을 것이며, 신라에도 많은 해운활동 종사자가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사적인 교역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장보고의 청해진 진출의 기본적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 한번 더 재고찰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장보고의 청해진 진출전의 당의 개방정책과 기미정책으로 재당 신라인들의 독자적인 활동 상황이 장보고와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보고의 활동 이전 나·당의 교역구조와 해운활동이 어떤 형태로 정립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9년 이상 당에서 생활한 엔닌일기를 통해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었다.

엔닌일기는 당에서의 신라인 해상활동을 소상히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장보고의 청해진 설진전 통일신라인의 해상활동은 분명히 활발했을 것인데도 既 연구자들은 군소·해상인 또는 해적의 일부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8-9세기 통일신라의 三十五金入宅을 소유했던 골품귀족의 실태와 그들의 사치욕구가 어떤 방법으로 충족되고 있었는가를 밝혀, 장보고의 청해진 진출의 목적과 관련여부를 확인코자 하는 것이다. 장보고 출현 이전의 사무역의 형태는 골품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상업자본 또는 선박의 건조, 선원의 확보라는 해운구조 아래서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8-9세기 즉 통일 이후 신라귀족의 실태와 그들의 경제기반이 무엇이며 또한 그들의 사치욕구가 장보고 출현 이전 어떤 형태로 충족되어 졌는가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東大寺·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의 유물과 귀족세력과의 관계를 밝혀 일찍부터 신라의 해상활동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는 장보고의 청해진 진출이 단순히 각종 사료에 산견되는 해적소탕이라는 명분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 갈 것이다.

일찍 엔닌일기를 통해 장보고를 조명했던 라이사위 교수<sup>4)</sup> 이후 김삼기 교수<sup>5)</sup>에 의한 장보고 연구는 지금까지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밝혀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장보고의 활동 시기에 나타나는 신라의 사회구조, 즉 경제기반, 귀족의 실태, 산업구조 등은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밝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3) 『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 10 憲德王 13年條. 「年荒民飢 抵浙東 求食者 一百七十人」

4) E.O. Reischauer, 『Ennin's Diary』, The Ronald Press Company, New York, 1955

5) 金庠基 『東方文化 交流史 論巧』, 乙酉文化社, 1984

## Ⅰ. 三國統一 後 新羅 貴族의 經濟構造

신라의 3국 통일은 러·제 양국의 지배계층 붕괴와 각지의 산물 유통이 원활해지면서 확대된 경제적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오직 한 국가의 지배계층으로 존재한 신라 귀족층에 의해 정치, 경제의 변화와 산업의 발달, 교역의 확대가 일어나는 시대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통일신라는 엄격한 골품 제도를 중심으로 귀족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골품에 따라 도시와 촌락의 산업활동과 민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통일신라의 도시 생활 중 골품귀족의 실태는 삼국유사<sup>6)</sup>에 나타나는 三十五 金入宅을 통해 당시 귀족 생활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라의 전성기 즉 산업의 발전과 국력의 증대는 무열왕(AD 654 - 661)~혜공왕(765 - 779)代까지 약 100년간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신라의 전성기는 골품귀족들의 호화스러운 생활과 사치 풍조는 외래품 유입을 위한 교역 품의 생산을 통해 산업구조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였다. 먼저 신라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골품귀족들의 경제기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奴婢

장보고의 출현전 1세기에 걸쳐 나타난 신라의 사회구조와 귀족의 경제기반을 집약해서 나타내준 新唐書<sup>7)</sup>의 내용이 있다. 「재상가에는 녹이 끊어지지 않고 奴僮이 3천이고 이와 같은 수의 갑병과 소, 말, 돼지가 있다. 海島에 목축하여 필요할 때 쏘아 잡아먹고 곡식을 빌려주어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는다」

여기서 재상가란 宰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 골품귀족(진골)을 대상으로 서술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新唐書에서 나타난 귀족은 신라귀족들의 경제기반의 일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위 기록에서 奴僮이 3천이 된다는 것은 노예의 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 그 수는 귀족이 소유하고 있는 部, 所, 食邑 등에 거주하는 집단 隸民과 신분노예를 포괄해서 奴僮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신분노예는 비교적 전쟁포로와 부채노비등으로 골품귀족에게 귀속되어 그들의 경제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 예민이나 奴婢들은 경작노동과 가내수공업, 잡역 부분으로 나뉘어져 종사되었을 것이다.

삼국유사<sup>8)</sup>의 기록에 의하면 분황사의 鍾과 약사여래상을 만드는 匠人 强古乃未 는 里上宅의 下典이므로 경주 35金入宅의 富潤大家의 귀족들에 있어 그들의 품위에 맞는 일정한 복식과 신발, 수레 등을 공급하기 위한 수공예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삼국유사의 里上宅下典도 이러한 귀족의 노예노동 편제에 따라 구성된 노예일 것이다. 또한 귀족들의 가장 큰 경제기반이 되었던 노예들은 私兵의 역할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6) 『三國遺事』卷1, 辰韓條.

「新羅全盛之時 京中十七萬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三十五金入宅 富潤大家」

7) 『新唐書』卷219, 列傳144, 北狄 「宰相家不絕祿 奴僮三千人 甲病牛馬猪稱之 畜牧海中山 須食乃射 息穀米於人 僕不滿 庸爲奴婢」

8) 『三國遺事』, 卷3, 芬皇寺 樂師條. 「鑄皇龍寺鐘 -- 匠人里上宅下典 -- 匠人木彼部强古乃未」

## 2. 部曲과 所

부곡·소의 집단 예민도 귀족들의 경제기반 중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된다. 부곡은 촌락공동체를 집단적으로 예측시켜 가면서 부곡장, 부곡 리에게 내부의 자치행정을 맡기고 그 長으로부터 收取를 행하였던 특수지역으로 이는 삼남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기의 부곡은 골품귀족들에게 집단적으로 예측된 예민으로 파악되어진다. 所는 통일기 이후 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부곡의 발전적인 分化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所는 金所, 銀所등과 같이 금속 광산등의 특수한 산업을 행사하던 지역일 것이다. 특히 통일기의 귀족들은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私兵의 확보는 대량의 병장기 제조와 공급원의 확보를 위해 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또한 遣唐使의 활동과 함께 나타나는 조공품을 통해서 신라의 산업이 확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 전에는 그 조공품이 원료적 토산품인데 반하여 통일후 성덕왕 22년(723년)의 조공품<sup>9)</sup>은 조하주, 어아주 등의 고급직물과 금은세공품이 수출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라 조공품의 질적인 변화는 부곡이나, 소를 중심으로 한 가내 공장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급물품의 생산을 위해 관영공장도 설치되어 세분화되고 분업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신라 三十五金入宅으로 상징되는 부유 귀족층의 물품 수요 증대에 따라 관영, 사영 공장에서 고급기술은 확대발전하고 있었을 것이다.

## 3. 私有地와 祿邑

통일기 귀족은 막대한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사유지 소유확대는 왕실로부터 하사 받은 賜田과, 매입, 개간 등의 방법을 통해 광범위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奴僮의 노동력과 풍부한 재력을 가진 귀족은 개간도 행하였을 것이고 또한 농민의 토지 점탈도 배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토지 매득은 고리대의 형태로 흡수되어진 것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지와 함께, 목장을 소유하였음은 앞의 新唐書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귀족들은 목장과 사유지, 녹읍을 통해 그들의 세력 근거지를 확보하여 통일신라 말기 96각간의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녹읍은 일시적인 賞賜로 지급되는 租와는 달리 계속해서 지급되는 祿의 성격으로 본다면 稅租를 일정한 지역에 지정하여 직접 收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경우 收稅者는 그들의 전통적인 族의 지배기반을 가졌던 지역에 收稅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며, 그렇게 본다면 단순한 租 보다는 그 지역의 力役까지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食邑과 같은 성격으로 변모해 갔을 것이다.

식읍은 연고가 있는 지역에 토지를 지급하여 그 지역의 통치, 收租, 力役을 관장했던 것으로 그것은 삼국사기에 산견되고 있다. 금관 가야 구해에게 그의 舊都를 食邑으로 주었고<sup>11)</sup> 김유신에게 식읍

9)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聖德王22年條.

「王遣使入唐. 獻美女二人」 「夏四月. 遣使入唐 獻果下馬一匹 牛黃 人參 朝霞細 魚牙絀 鏤鷹鈴 등」

10) 『三國史記』卷 39, 雜誌 8 職官條.

「陵色典大舍一人 史一人 朝霞房 母二十三人 染官母十一人」

11) 『三國史記』新羅本紀 卷4 金庾信傳 下

백호를 주었으며<sup>12)</sup> 김인문에게는 식읍을 두차례 3백호와 5백호를 지급하였다.<sup>13)</sup> 또 궁복(장보고)에게 食實封 2천호를 주었다.<sup>14)</sup> 이는 실제 장보고 지배하에 있던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그의 私民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보겠다.

이상에서 본 통일기 신라의 산업발달과 관련하여 나타난 골품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은 호화스러운 생활과 사치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조공, 回易 형태의 공무역이나 부대무역으로 당의 고급상품이나, 문화재에 대한 수요를 증대 시키면서, 사무역의 발달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는 신라의 산업발달에 따른 문화의 향상과 신라인의 생활상태변화 등으로 민간무역의 확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골품귀족들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활동은 장보고의 청해진 출현 이전부터 확산되고 있었다. 이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기본적 사료가 동대사 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 귀족들의 이름이 있는 상품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Ⅲ. 東大寺 正倉院의 寶物과 新羅의 産業構造

정창원은 신라 촌락(西原京--淸州)의 帳籍이 발견된 곳이다. 신라장적은 7-8세기에 걸쳐 신라 촌락의 생활 양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였다. 근래 正倉院에서 8세기에 교역되었던 신라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그 유물들을 통해 신라 귀족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장보고의 청해진 설진이전 신라, 일본과의 교역상태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과 8세기 신라 산업구조의 발달과 귀족들의 상관관계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자료는 李成市<sup>15)</sup> 씨 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였다.

#### 1. 新羅의 文物

정창원의 보물은 奈良 時代 唐과 교류를 통해 남겨진 문화유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신라문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창원의 증창에는 전체 15挺의 墨이 전하는데 그 중에 신라의 선박형 墨이 2挺 있다. 그것은 중앙에「新羅楊家上墨」과「新羅武家上墨」이 양각되어져 있다. 지금 이 자료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신라의 교역활동이 唐, 日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위의 墨안에 양각된「楊家」「武家」는 墨을 제조한 家号이며, 그 墨은 국외에 수출을 전제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창원에는 상당한 수량의 椀(주발), 皿(그릇), 匙(숟가락)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점의 皿 밑에「爲水及末」이라는 針書가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여기 爲水는 신라의 人名이며 及末은 신라의 官位(17관등중 11등의 官位)이다. 이렇게 볼 때, 이 皿은 신라 官人의 소유물로 판명된다.

그 외 7-8세기 신라토기인 長頸壺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선박으로 운반되어 질 때, 배의 흔들림

12) 『三國史記』卷43 金庚信傳 下

13) 『三國史記』卷44 金仁問傳

14) 『三國史記』新羅本紀 卷10 神武王 6年條

15) 李成市,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 青木書店, 1997

에 강하여 내용물을 보호하는 기능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안에 액체나 분말을 넣어 신라에서 반입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2. 雁鴨池 出土遺物과 正倉院 寶物

안압지는 문무왕 19년(674)에 신라 王都(경주)에 만들어진 宮苑池이다. 신라 멸망 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을 1975년 3월부터 9개월간 발굴 조사하여 1만 5천점에 걸친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이는 신라 융성기인 8세기의 궁중 일상 생활용품 등이며, 귀족들의 생활상을 밝혀주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 이 발굴은 정창원의 보물과 신라문물의 관련을 확인시켜 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안압지의 발굴 성과는 장보고의 출현 전부터 신라의 산업 발달에 따른 귀족들의 생활을 밝혀주는 자료의 제공과 일본 정창원에 보관된 다량의 보물들이 신라의 제품임을 밝혀주는 역할을 통한 · 일간의 문물교류가 왕성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정창원 보물에는 원형과 타원형의 匙가 345점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匙는 안압지에서 출토되었고 그 이전 황해도 평산, 충청도 부여 등지에서도 출토되고 있었던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匙라고 추정되어 진다. 정창원에 보관된 匙중에는 포장된 상태의 타원형인 것과 원형인 것이 각 한 묶음씩 합해서 두 묶음이 한조로써 종이에 싸여있다. 이것을 볼 때 여기서도 두 묶음을 한 組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며 이는 안압지 출토 유물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안압지에서 출토된 鏡(반침대)은 정창원 보물의 과 동일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안압지 출토 유물은 신라의 궁중에서 사용하던 물품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데, 그 가운데 장식이 잘된 금동제 鋏-剪子(가위)가 있다. 이 가위의 특징은 구름형의 손잡이와 함께 칼부분에 둥근 銅版이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은 초의 심지를 잘랐을 때, 떨어진 심지를 받기 위한 세공품이다. 따라서 이 가위는 「防災-가위」라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정창원 南倉에 소장된 금동 가위는 완전히 이와 동형식의 것이었다. 이는 8세기의 문서(買新羅物解)에 의하면 신라에서 燭台를 구입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창원의 금동가위는 신라에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된다.

## 3. 正倉院 所藏의 毛氈

정창원에 소장된 毛氈은 8세기 신라귀족들에 의한 교역의 형태와 신라 산업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모전은 羊毛를 압축하여 만든 모직물이다. 이와 같은 모전류는 원래 중국 塞外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다. 서역과의 교통이 융성하였던 唐時代부터 중원지방에 유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모전이 신라에서 생산되었고, 그것이 일본지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은 신라의 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자료가 된다. 정창원에는 色氈, 花氈을 합쳐 약 50床이 있는데, 그 가운데 麻布의 절단이 봉해진 곳에 墨書가 쓰여진 것이 있다. 이것은 그 문서를 통해 신라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6)</sup>

16) 李成市 「上揭書」 pp,35

## (A) 色氈貼布記

紫草娘宅紫称毛一  
念物糸乃綿乃得追亏

## (B) 花氈貼布記

行卷韓舍價花氈一  
念物得追亏

위의 布記문은 일반적인 漢文의 어법이 아닌 신라사회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특수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확한 布記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 이 布記文이 신라인의 것이며, 또한 교역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먼저 (B)의 「韓舍」는 신라 17관등 중의 한 官位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韓舍는 12官等인 大舍의 異表記로서 8세기에 들어 처음 사용된 것을 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sup>17)</sup>

또한 布記 A의 「紫草娘宅」은 앞의 정창원 보물의 목의 명문에 「新羅楊家上墨」이라는 문자가 제조업자 가호였음을 참고한다면 이 또한 모전의 제조업자 가호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제조업자가 수출 상인을 겸하는 경우와, 또는 제조업자가 상인에게 판매를 위탁했을 가능성과 신라 상인이 중국에 集積되어 있는 문물을 일본에 가져 간 매개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표기문을 통해서 볼 때 신라 상인의 활동과 관련되고있음이 확실하다. 8세기 신라 수도에 集住 하고 있는 골품귀족들은 왕실과 통혼 관계를 가지면서 확대된 경제기반을 배경으로 생활동과 교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자료이다.

위자료 중 넘물은 신라물과 동일한 의미로서 신라의 문물의 내용이나 또는 교역의 대가로 지불되어 져야 할 물품의 종류, 분량 등을 표기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정창원의 모전에서 발견된 포기의 자료는 장보고 출현 전 신라는 공무역의 형태속에 사무역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는 신라 귀족들이 일본의 견제품을 획득하기 위해 모전으로 교역을 하였다는 점과 연결해서 추정되어 지는 것이다.

## 4. 手工業과 新羅貴族

그런데 위 정창원에서 신라 제조업자의 가호가 있는 모전의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신라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당서<sup>18)</sup>신라전에는 가축에는 羊이 없고, 말이 많다는 기록이 있는데 羊毛를 원료로 하는 모전이 신라에서 어떻게 제조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위에서 본 布記의 내용은 8세기 이후 신라·일본간의 교역에 모전이 교역품으로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문제는 모전의 생산을 두고 본다면 신라상인에 의한 통상무역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교역의 담당자가 제조업자일 수 있는 신라귀족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8세기의 신라의 산업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의 견제품을 획득하기 위해 모전을 대가로 지불한 자초낭택은 신라 왕정에 거주하는 진골귀족이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교역에 참여하고 있던 그들의 경제기반과 그들의 생활양식은 어떠한가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장보고의 청해진 진출 후 흥덕왕 9년(834)에는 사치에 대한 억제

17) 武田幸男『金石文資料がらみた新羅官制』『江上波教授古稀記念論集(歴史篇)』山川出版社, 1977

18) 『新唐書』卷220, 列傳 145, 東夷 新羅傳「畜無羊 少驢羸 多馬」

법령<sup>19)</sup>을 내리고 있다. 「…세속은 점점 경박하여 백성들은 사치와 화려를 다투며 오로지 기이한 물건  
의 진기함을 숭상하고 도리어 지방산물의 속됨을 싫어하므로……풍속의 허물어짐은 오락케를 능가  
하기에 이르렀다……혹법을 범하면 뒤틀린 형벌로 다스리겠다.」 그리고 車騎에, 器用, 屋廬에도 골  
품의 차이에 따라 차등있게 억제법령을 내리고 있었다. 이 법령은 8-9세기에 걸쳐 나타나는 신라골  
품귀족을 비롯한 王京人의 자산과 소비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 법령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진골귀족의 존재형태나 그들의 경제기반이 최상위에 있고 또한 여  
러 가지 규제를 가장 먼저 받는 그들의 실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귀족들의 경제기반인  
대토지 소유의 실상도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삼국사기 문무왕 9년(669)조<sup>20)</sup>의 기록은 말 기르는 목장을 174곳이나 골품귀족 태대각간(김유신),  
태각간(김인문) 각간, 이찬, 소판, 아진찬, 대아찬에게 분배해 주었던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 자료에  
서 본다면 말 사육장은 그 시기에 중요한 군사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지역에 편재된 것  
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진골귀족들의 토지사유는 지방각처에 말 사  
육장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앞부분의 신라귀족의 경제기반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황룡사 범종의 주조에서 里上宅 장인의 존재는 진골귀족들의 사적인 장인이 국가적 사업  
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上院寺銅鐘의 주조에 참여한 照南宅의 仕某도  
私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골품 귀족들은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私匠 및 다수의 기술자를  
예속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장보고 진출전의 신라사회구조는 골품귀족들에 의한 산업활동과 교역  
활동을 통해 사치한 생활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장보고의 신라진출은 흥덕왕대에 나타난 해적소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발달  
한 산업구조에 따른 충분한 교역상품과의 관련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Ⅳ. 張保臯 淸海鎮 設鎮 以前 新羅의 交易構造

신라의 삼국통일은 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활발한 교역활동을 통해 신라의 사회구조에 커다란 변화  
가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바 있다. 산업의 발달과 문화의 향상은 신라 골품귀족들의 물품수요  
의 증대가 확산되어 갔고 이는 지금까지의 조공무역만으로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 私무역의 확대  
에 이르게 되었다. 장보고의 청해진 설진 이전부터 신라는 唐·日과의 교역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되  
었다. 이러한 현상은 삼국통일 후 문무왕대에 唐과의 公무역(조공무역)은 美女나 금, 은, 동, 우황, 布  
등의 빈약한 것이었다.

그후 성덕왕 22년 (723)년 三月에 美女 2명을 바쳤는데 당의 현종은 「이 여자들은 모두 왕의 姑姊

19) 『三國史記』卷22 雜誌 色服條 興德王 9年條

「人有上下位有尊卑名例不同衣服亦異俗漸褻薄民競奢華只尙異物之珍奇  
却嫌土產之鄙野禮數失於逼潛風俗至陵夷敢率舊章以申明命苟或故犯固有常刑」

20)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 文武王 9年條

「領馬陸一百七十四所屬所內二十二官十賜庾信太太角干六仁問太角干五角干七人各三伊滄五人各二蘇判  
四人各二波珍滄六人大阿滄十二人各一以下七十四所隋宜賜之」



妹로서 본국을 이별하고 떠난 터이므로 나는 차마 머물게 할 수 없다」하고 돌려보냈다.<sup>21)</sup> 이와 같이 통일후의 신라의 산업은 빈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후 헌덕왕대(810)에 이르면 공무역에 있어 그 질과 량에 현저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애장왕7년의 기록에 「새로 불사의 창건을 금하고 …錦繡로써 불사하는 것과 金銀으로 기물을 만드는 것을 금한다…」<sup>22)</sup> 이와 같이 것을 보아도 신라인의 생활구조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골품귀족층의 가내공장의 발전도 신라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는 물품수요의 충당을 위해 조공무역이 아닌 사무역의 성행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무역은 8세기말 9세기초부터 정치적 통제에 이완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사무역의 발달은 해상교통의 발전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었다. 해상교통은 삼국시대에도 한반도 서해안을 통해 황해를 횡단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에도 역시 항해 횡단로를 통해 산동반도에 당도하였다.<sup>23)</sup> 이 시대에는 계절풍의 효과적인 이용 등의 항해술, 조선술의 발달이란 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장보고 출현 전은 이와 같은 사무역의 담당자는 신라에서 형성된 해상세력으로 본다면 그들은 골품귀족세력과의 관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핀 일본 정창원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당대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연안 일대에 신라인의 세력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으니 이는 물론 신라방이라는 거류지이다. 물론 제당 신라인이 당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시대를 중심으로 장보고의 활동을 확인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한정해서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들 재당신라인들은 장보고의 출현 전부터 당의 기미정책에 의해 구당 신라소라는 특별한 행정기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생활구조는 圓仁行記<sup>24)</sup>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7. 楚州(신라선 9척과 암해자 60여명을 일시에 동원할 수 있었던 해운조직의 중심센터 2. 揚州(무역상이던 왕청이 있었고 또한 신라선을 건조하던 선공집단이 있었다.이 기록등을 통해서 볼 때 재당 신라인들의 활동은 장보고 출현 전부터 시장무역과 관련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조공무역선과 함께 했던 사무역은 신라본국상인과 재당 신라인간의 교류가 활발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골품귀족의 사치한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 「삼국사기」권8 성덕왕32년(733)<sup>25)</sup>에 나타나는 앵무새 암수 한쌍, 금, 은, 세기물, 五色羅採 등의 하사품은 이미 장보고 출현전의 羅唐의 교역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장보고의 창해진 설진 이전의 신라 교역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당과의 교역실태를 살펴보았다. 8세기에 걸쳐 신라교역의 형태는 기록상으로는 공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통일신라의 사회구조 중 골품귀족들의 방대한 경제기반을 통해본다면 사무역의 활성화는 불가피한 것이라 보였다. 여기서 일본과의 교역형태를 통해 8세기의 신라교역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신라는 3국 통일후 당이

21)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聖德王 22年條.

「王遣使入唐 獻美女二人 --- 玄宗曰 女皆王姑姊妹 違本屬別本國」

22)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 哀莊王 7年條

23) 孫兌鉉, 『前掲書』 pp. 42

24)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會昌5年 9日條

25)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聖德王 32年條

나 일본과의 교역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고 본다. 「일본서기」천무조<sup>26)</sup>를 보면 신라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물품은 금, 은, 鐵釘, 등이며, 같은 자료에서 낙타와 細馬, 綾羅, 藥물류 등을 신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보고 출현 전 이미 신라는 중국을 통하여 서방, 남방 지역의 낙타 등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속일본기」<sup>27)</sup>의 기록은 입관된 신라물품을 구매하려는 좌우대신을 비롯하여 대관, 왕녀들로부터 구매대금으로 太宰府 綿 7만여 톤을 하사한 내용을 밝혀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의 신라무역이 대규모로 성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 동대사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買新羅物解」<sup>28)</sup>라는 문서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매신라물해」는 관품 5위 이상의 일본귀족들이 신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내용을 기록하여 대장성에 제출한 구입허가신청서이다. 이와 같은 「新羅物解」의 내용중 天平勝寶 4년 6월 (752년 신라경덕왕)의 것을 보면, 신라왕자 韓阿湊金泰廉 등 사절단 일행이 平城京에 머물렀다. 이러한 기록은 「속일본기」卷 18 「王子金泰兼 貢調使大使金の 送王子使金弼言 第七百余人 船七……」라고 그 시기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일본과 소원했던 양국간의 국교를 해소하기 위해 奈良 동대사 대불의 개안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주목되어야 할 사실은 700여명의 사절단 파견이라는 것이다. 이 사절단의 성격은 공무역의 관행을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는 일본에서의 사무역을 위한 신라상인 집단을 위장한 조공 사였음이 분명하다. 신라의 교역품은 주로 금속품, 기물, 향료, 약물 등이며 향료는 靑木香, 丁香, 甘松香, 용뇌향 등인데 주로 남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산이 많았다. 이와 같은 교역품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8세기에 있어, 이미 신라는 중개무역이나 직접무역 등 활발한 무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일본이 7세기로부터 8세기 중엽까지 신라와의 교역에서 구매한 新羅物은 고가 품들이었으며 서역, 동남아, 중국 등지에서 산출되는 상품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779년 혜공왕때 양국 정무간의 공식관계가 두절되어 장보고의 출현 이후의 변화기에 들어서야 일본의 귀족들은 그들이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장보고의 출현 전까지 신라상인의 활동과 교역의 내용들 즉, 중국(唐)과의 왕래와 서역상품까지 일본에 수출했던 그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서 통일후 골품귀족(진골)의 경제기반과 그들에 의해서 형성된 신라의 산업구조의 확대에 따른 교역활동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V. 9世紀 新羅 社會構造의 變化와 張保臯의 淸海鎮 設鎮

### 1. 新羅 下代 社會構造의 變化

앞 부문에서 살펴본 통일신라의 산업의 번영은 통일 후 확대된 영토와 전체경제권이 수도 경주로

26) 『日本書記』卷29 天武8年 10月條. 「新羅遣阿湊金項那 沙湊薩 生朝貢也 調物 金銀鐵錠 錦絹布皮 馬狗驢駝之類 貢金銀刀」

27) 『續日本記』卷29 神護景雲2年 10月 甲子條. 「-- 左右大臣太宰綿各二萬屯 大納言韋弓削御淨朝臣清人各一萬屯 從三位文室真人淨三六千屯 --- 爲買新羅交關物也」

28) 李成市 『前掲書』 pp.83 - 84

집중되어 오면서 가능해진 것이었다. 신라 下代에 들어서면서 골품귀족들의 사치와 안일한 생활이 팽배해 가는 동안 생산담당자였던 지방농민들은 중앙귀족의 착취에 견디지 못하여 流亡 또는 도적화하고 지방세력가들은 중앙정부에 저항하는 下代의 현상이 초래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라 하대는 해공왕대에 최초로 일어난 골품(진골)귀족들의 반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본다. 이는 「삼국유사」권22<sup>29)</sup>에 一吉濱 大恭의 난에 五道 州郡의 96각간이 일어나 相戰하면서 신라 하대가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155년간 20왕이 교체되는 혼란한 정치구조를 가지게 되며, 중앙에서는 끊임없는 왕위 쟁탈전이 계속되는 동안 농민들은 流民이 되거나 도적이 되고 있을 때 沿海岸지방의 농민이나 어민들은 해외로 流亡하거나 해적이 되는 자들이 많아 중국, 일본의 해안지방을 소란케 하였다. 일본후기 권22 흥인삼년정월조(헌덕왕 4년 812년)에 신라의 해적선 20여척이 대마도를 침입하였고 경문왕 9년 869년에 신라해적이 일본지방민이 上貢하는 綿을 약탈하였다는 기록을 접할 수 있다. 이는 중앙귀족과 결탁되어 있던 기존의 상인들이 왕위쟁탈전으로 혼란한 시대적 상황과 일본과의 정치적 국교가 단절된 이후 그들의 활동이 주춤 있었던 시기의 현상일 것이다. 下代로 내려오면서 국가기강이 해이해지고, 귀족이나 사원의 장원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와 비례하여 일반농민에 대한 收取는 더욱 가혹하여 농민들은 거의 몰락하여갔다. 원래 왕실이나 중앙귀족들의 호화생활은 농민으로부터의 수취와 밖으로 해외무역에서의 이득을 독점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따라서 골품귀족들의 사치풍조의 심화는 사회기강의 해이와 골품제도 마저 문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장보고의 청해진 설진 시기인 헌덕, 흥덕왕대에 들어 만성적인 기근과 전염병까지 유행함으로써 농민들의 실정은 심각한 상태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 10에 나타나는 헌덕왕, 흥덕왕의 자료를 통해서 신라 하대의 심각성을 살필 수 있다.<sup>30)</sup>

- <1> 헌덕왕 8년(816) --- 「年荒民飢, 抵 浙東求食者 一百七十八」  
 “ 11년(819) --- 「三月, 草賊遍起, 命諸州郡都督太守捕擒之」  
 “ 12년(820) --- 「春夏·旱·冬·飢」  
 “ 13년(821) --- 「春·民饑, 賣子孫自活」
- <2> 흥덕왕 2년(827) --- 「秋八月, 太白晝見, 京都大旱」  
 “ 3년(828) --- 「漢山州 川縣妖人自言, 有速富之術衆人頗惑之」  
 “ 7년(831) --- 「春夏旱亦地…… 八月, 飢荒, 盜賊編起」  
 “ 8년(832) --- 「春, 國內大飢, 冬十月 民多 疫死」

여기에 열거한 사료는 헌덕·흥덕왕대의 일부분이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중대말기인 성덕왕, 경덕왕대부터 농민층이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성덕왕 4년(705)~6년(707)에 기근이 극심했고, 경덕왕 6년(747)에 농민이 기근에 시달리며 역질로 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농민층의 만성적 기근에도 중앙귀족들은 찬란한 귀족문화를 구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 모순은 갈수록 누적되어 도적발생, 유민의 발생을 확대시키고 있었다.

29) 『三國遺事』卷2 惠恭王條 「七月三日 大恭角干 賊起 王都及五道州郡並九十六角干相戰大亂」

30) 『三國史記』新羅本紀 卷10 惠德 興德王條

## 2. 張保臯의 靑海鎮 設鎮

앞부분에서 고찰한 8세기의 신라산업의 발달과 교역활동은 9세기 장보고의 출현 이후 청해진 설진과 아울러 우리 역사상 최초로 해운산업과 국제무역을 개척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청해진 설진은 9세기 한·중·일의 해상권을 지배하며 해상왕국을 건설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장보고의 출현을 9세기로 본다면 신라사회는 下代期로서 정치권의 혼란과 농민들의 처참한 생활과 골품귀족들의 호화로운 생활들이 복합되어있는 시기였다. 이와 같은 시기는 당에서도 안록산의 난과 사사명의 난으로 중앙의 통치력이 무너지고 지방의 절도사 전성시대로 들어간 시기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혼란도 적지 않아 황해를 중심으로 중국인 해적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장보고의 출현에 관한 자료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당서」, 두목의 「번천문집」 등이다. 이들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보고의 활동상황은 810년대 자활의 길을 스아 중국으로 건너갔고, 819년 서주 무녕군에서 복무하여 이정기 일가의 번진 토벌에 공을 세워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는 것을 추출해 낼 수 있다.<sup>31)</sup>

이렇게 볼 때 장보고는 중국에서 일정한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32)</sup> 따라서 그의 행적을 재당 신라인과 연결해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라이샤워 교수의 지적대로 청해진 세력은 상업제국이며, 장보고를 무역왕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무역왕의 위치는 재당 신라인의 활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엔닌일기<sup>33)</sup>를 통해 9세기 재당신라인의 실태를 파악해 볼 것이다. 839년 중국으로 건너가 847년까지 9년 반동안 당제국을 여행하면서 남겨놓은 기록 속에 나타난 재당 신라인의 활동은 광범위한 무역상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신라인 사회는 산둥반도 남안일대와 회화 하류일대를 따라 집중되어 있고 대운하와 회하를 연결하는 종착지인 초주는 거대한 신라조계가 있었다. 이는 그의 일기에서 초주는 839년 일본사절단의 신라역어 김정남이 일본사절단의 귀국을 위해 9척의 배를 구하고 이것을 운항할 60명의 신라인 선원을 고용했던 곳이라고 했다.

또한 연수현 마을도 신라방을 이루고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인 사회의 최대집단의 하나가 적산원 가까이에 있음과 적산법화원의 신라인집단을 기록하고 있다. 신라인 사회는 여러 형태의 신라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의 많은 부분에서 그들의 활동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엔닌의 기록을 보면 唐의 기미정책에 의해 중국 동남안 지역의 회교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신라인 사회도 상당한 치외법권의 특전을 가지고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신라상인 사회는 초주, 연수향, 양주를 중심으로 남중국의 명주와 태주, 광주까지 그들의 활동영역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생업의 형태도 조선업자, 선원, 상인, 해운업자, 제염업, 목탄 생산과 그리고 국제무역 종사자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 종사자들은 당·신라·일본 뿐만

31) 李基東 「9-10世紀 黃海를 舞臺로한 韓中日 三國의 海上活動」 『韓中文化交流와 南方航路』 國學資料院 1997 pp. 119

32) E.O. Reischauer 「前掲書」

33)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아니라 아라비아 페르시아 무역상인과도 교역하며 세계무역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면 장보고와 신라인 사회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신라인 사회의 자치적 성격을 파악해 보면 신라인의 자치단위는 신라방이다. 초주 신라방의 책임자는 總管으로서 薛諤이었다. 엔닌일기에 나타나는 신라역어는 이들 사회에서 총관 다음 일 것으로 추측되는 것은 역어 劉愼言이 설전의 후임으로 총관이 되고 있음을 통해서이다.

또한 신라인 집단 거류지에는 句唐 新羅所라는 특별한 행정기관이 있었으며 그 책임자를 押衙라고 부르며 張詠이 맡아있으며 그후 崔押衙가 맡고있었다. 押衙는 新羅租界를 통괄하며 신라 사절도 관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엔닌일기<sup>34)</sup>에 나타난 기록중 엔닌이 중국관현에 의해 일본으로 강제 귀국되었을 때 연안의 신라인들로부터 피난처를 초으려 했고 허가증없이 상륙하였을 때 신라인으로 위장하여 통과 하려했던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당의 신라인 조계가 가지는 역할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당에서의 장보고 위치에 대해서 고찰해보면 엔닌 일기에서 적산 법화원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장보고에게 경의를 표하고있음을 볼 수 있다. 적산 법화원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장보고의 직접적인 비호를 받는데 대한 감사한 마음일 것이다. 적산 법화원은 장보고 해상 무역단의 거점으로서 매년 쌀 500석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하였고 또 그에 의해 건립된 사찰이란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은 장보고의 청해진 진출 후 장영이 법화원을 관리하고 있었다는데서 확인 된다. 법화원과 당의 신라인 사회를 관할하던 장영은 아마 장보고의 지배하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 중 더욱 중요한 사실은 신라인 사회나 신라 상인들의 해상활동은 엔닌의 거류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데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이는 엔닌일기중 엔닌이 양주에서 만난 환속 승려인 李信惠의 증언으로 명백해진다. 이렇게 볼 때 장보고는 무령군 입대 이전이나 무령군 소장 시절부터 재당 신라인 사회와 신라상인사회를 조직하고 체계화하여 자신의 명령계통 아래 두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바와 같이 장보고의 활동은 무령군 소장이었기 때문에 당에서 신라인 사회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신라인 租界에서의 활동은 것을 것으로 보아진다. 이는 번천문집(두목)에서 나타난 장보고, 정년의 무술실력을 통해서도 이해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장보고의 귀국 즉 청해진 설진의 목적은 무엇이었는데에 대해서 기 연구자들의 논거를 통해 재정리 해보기로 한다. 李永澤 교수<sup>35)</sup>는 9세기 만성적 기근과 정치적 혼돈 속에 놓여있는 신라 본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 때문에 중국으로 이주하려는 자들의 수가 증대되고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 희망자들을 수송하는 군소 해상세력을 자신의 통제아래 두는 한편 재당 신라인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나. 당. 일 삼국무역을 모두장악 해야겠다는 포부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장보고의 포부는 9세기 한국의 각 도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있는 군소 해상활동자들이 재당 신라 교민 사회의 무역활동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조와 동일한 내용을 발표한 노덕호씨<sup>36)</sup>도 있다.

34)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會昌5年 9月 22日條

35) 李永澤, 『張保阜 海上勢力에 관한 考察』, 『海洋大論文輯』14, 1979, pp. 68

36) 盧德浩, 『羅末 新羅人의 海上活動에 관하여』 『史叢』, 高大史學會, 1985, pp. 23 - 24

李東基 교수<sup>37)</sup>는 당은 821년 이사도의 번진 토벌 후부터 兵員의 수를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장보고가 소속된 무령군도 감축정책이 실시 되었을 것이며 장보고가 군을 떠난 계기가 귀국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蒲生京子<sup>38)</sup>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金德洙 교수<sup>39)</sup>는 청해진 설진 이유를 국제무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한·중·일 3국의 교통에 있어 중간 기항지로서의 청해진이 가지는 중요성과 항해 관리자로서 그 지리적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중국학자 王杰<sup>40)</sup>교수는 武寧軍 절도사 王智興과의 관계를 중국측 사료를 통해 장보고의 귀국동기와 청해진 설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왕결 교수는 장보고의 귀국동기를 서주군 절도사인 왕지홍이 장보고를 강제 축출하였기 때문에 귀국하였다라고 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왕지홍은 徐州의 군대 병사로부터 從軍하여 절도 부사 까지 단계적으로 승진한 후 822년 반란을 일으켜 무령군 절도사가 된 사람이다. 왕지홍이 서주에서 벼슬했던 시기를 780년부터 832년까지로 본다면 장보고는 왕지홍과 같이 근무한 셈이 된다. 여기서 왕교수는 왕지홍의 탐욕과 편협함을 사료를 통해 증명 하면서 장보고의 귀국동기를 밝히고 있다. 첫째 장보고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중 장보고를 승진시키지 아니하였다. 둘째 왕지홍은 병사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던 石雄 장군을 퇴진 시켰다. 셋째 장보고의 친구인 鄭年이 무령군에서 나와 連水縣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하여 장보고와 정년은 동일하게 왕지홍 어로부터 강제 퇴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했다. 왕교수는 이러한 사실은 829년 왕지홍이 부사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장보고는 왕지홍의 반대파에 있었던지 왕지홍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축출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 연구의 성과는 장보고의 청해진 설진의 동기나 목적을 정립시키지 못한 결과이다. 장보고의 귀국동기는 위에서 정립된 8세기 신라 산업구조의 발달과 골품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와 연결하여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보고 출현 전부터 신라는 고가의 상품을 제조하였고 또 선박, 항해기술까지 발전시켜 당, 일과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9세기 장보고의 출현은 앞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당의 신라 상인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법화원 건립등을 추진하였으며 년수 오백미석의 장전을 기증할 수 있었다. 환연한다면 당의 신라인 사회를 지배하는 장영, 유신언 최운 십이랑 등을 포괄적으로 관장하면서 대상인으로 존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장보고의 청해진 설진의 동기를 정의 하기 전에 신라의 사회구조를 살펴보면 신라 선덕왕이후 (780 - 835)의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또 당도 안록산의 난후 신라와 같이 중앙통제력이 약화되었다. 당간의 사무역은 크게 성행하고있었다. 신라는 골품귀족과 국가의 착취, 천재지변에 시달렸던 지방민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길

37) 李基東, 「張保阜와 그의 海上王國」, 『張保阜의 新研究』 時事文化社, 1985

38) 蒲生京子, 「新羅末期의 張保阜의 擡頭と 反亂」, 『朝鮮史研究會』, 1979

39) 金德洙, 「張保阜의 海上貿易에 관한 一考察」, 『韓國海運學會誌』, 韓國海運學會, 1988

40) 王杰, 「An Examination of boat form between the chao chuan of Tang dynasty and Zhang Baogao's Trader」, 1997, 韓國航海學會 세미나 發表資料

은 타국에의 망명과 생업의 수단으로 활동된 변경 해안지방에서의 선박건조, 사무역상으로 변모해갔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 당의 신라인 사회를 관장했고 상인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던 장보고는 해상무역의 확대를 시도했을 것이다. 물론 해상무역의 확대란 나·당·일 그리고 페르샤·아랍등과의 교역 확대일 것이다. 이는 장보고가 무령군 소장으로서는 회하 하류 일대에서 재산을 축적해갔으며 신라인 조계에서 수령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엔닌 시대에는 반군인적인 관리로서 그의 활동은 동아시아 해상권 확보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sup>41)</sup> 이렇게 볼 때 장보고의 청해진 설립 목적은 위의 이기동교수의 주장처럼 장보고가 무령군을 떠났기 때문에 귀향할 수밖에 없어 청해진을 설정했다는 논거나 중국학자 왕결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무령군 절도사로부터 축출 당하였기 때문에 청해진으로 돌아 갈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장보고의 청해진 설립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① 신라 통일 이후 골품귀족(진골)들의 경제 기반 확대와 관련하여 나타난 산업구조의 발달이다. 이는 동대사 정창원에 소장된 신라의 고급상품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 ② 확대 발전한 신라의 산업은 골품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역활동의 활성화와 연결된다. 물론 8세기의 교역은 조공무역 형태이지만 사무역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이는 조공사로 일본으로 간 왕자 김태림의 조공사절이 700명이 되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 ③ 이와 같은 8-9세기 신라 사회구조는 골품귀족들에 의한 사무역의 확대로 중국에서의 교역도 활성화되고 있었다. 이는 E.O Reichauer<sup>42)</sup>의 신라인 무역상들의 활동을 밝히는 내용중 白居易의 詩文을 모두매점하여간 상인이 신라인이라는 것과 당시의 저명화가의 작품 10여점을 고가로 매입해간 신라상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 ④ 9세기 신라·당의 정치적 혼란과 중앙집권적 인 통제의 弛緩 은 사무역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시기 이미 장보고는 재당 신라인의 조계를 관장 하면서 무역활동에 종사 하여 부를 획득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이미 신라의 산업구조 발달과 함께 고급화된 상품이 당으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장보고도 그들 상품을 교역의 대상으로 하였을 것이다.
- ⑤ 장보고는 이미 재당 신라인의 무역상인들을 통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신라 본국의 풍부한 교역품과 신라상인들을 자신의 통제아래 두어 나·당·일의 삼국무역을 모두 장악하려는 포부가 작용했을 것이다.
- ⑥ 삼국사기 헌덕왕 3년조의 기록중 해적의 횡행과 흥덕왕 3년조의 기록에서 해적퇴치를 건의 하면서 만인의 병졸을 받아 청해진을 설치 했다는 내용은 장보가 의도했던 청해진 설립의 과정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렇게 볼 때 중국에서 번진의 경험을 가진 장보고는 청해진 자체가 치외법권적 특수영역을 활용하여 그의 막대한 재산과 군사적 경험을 통해 해상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일본에 회역사, 중국에 건당매물사를 파견하면서 9세기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왕으

41) E.O. Reischauer, 「中國 中世社會로의 旅行」조성을역, 한울사, 1996, pp, 292

42) E.O. Reischauer, 「Ennin's Diary」, Arther waley, 「The life and times of Po cho-i」, Alexander. C. Scope 「Tang chao ming hua, cu」

로 그 자리를 굳혀갔을것이라 이해되어진다.

## VI. 맺 음 말

E.O 라이샤워 교수는 중국 동부와 신라 그리고 일본의 무역은 대부분 신라인에 의해 장악 되었다고 했다. 또 일본의 日野開三郎 씨는 신라 해상무역의 융성은 당나라 말기까지 200여년 계속되었으며 동지나해를 재패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의 근거는 청해진을 중심으로한 장보고의 해상활동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는 재당 신라인 상인 사회와 확대 발전된 신라의 산업활동이 연계되어 이루어진 해상무역의 성과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상무역이라 할 때 선박·항해술·항로를 중심으로 충분한 교역대상과 교역품이 완비되어 졌을 때를 의미할 것이다. 여기서 주지해야할사항은 장보고가 활용했던 선박과 항해술은 중국의것을 활용 했다고 중국의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보고의 출현전 이미 신라는 그들의 선박과 그들의 항해술을 통해 일본·중국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 한바 있다. 또한 그시대의 무역구조는 상품의 판매와 매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역되어져야할 상품은 해상무역의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신라의 3국통일후 8세기에 이르러 3배의 영토 확대와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확대 발전해간 신라의 산업구조를 분석하려하였다. 그것은 삼십오금입택을 가진 골품귀족의 경제기반을 통해 유능한 工匠과 대규모의 家産工房을 소유하여 최고품의 상품을 생산할수 있었던 신라 산업구조의 발달을 확인 하려 하였다. 이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구조를 통해 이루어진 교역의 산물로 남아있는 東大寺 정창원의 소장품중 毛氈(양털 담요), 長頸壺(항아리), 鏡(그릇받침대), 匙(술가락), 金銅剪子(금동제가위), 加盤(사발) 등은 그시대의 산업발달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그시대의 중요한 교역품으로서는 고급 견직물인 조하주. 어아주 나 신라자기 등이있다. 이러한 산업발달을 기반으로 이미 장보고출현전 한반도 서해연안을 거쳐 황해를 횡단하여 산동반도에도달하여 조공과 사무역을 전개해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라의 산업과 교역구조는 골품귀족의 경제기반과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었을 때 그것은 체계적인 교역활동이 이루어 질수 없을 것이다. 신라는 혜공왕대에일어난 96각간의 난이후 155년간 20왕이 교체되는 왕권 쟁탈전기에 들어갔다. 또한 당도 안사의난후 신라와 같은 시대적 구조속에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장보고가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중 가장 큰 것은 재당신라인 사회를 유기적인관계로 정립시켰다는 것일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배경중 30세의 젊은 나이로 무령군소장이 되었다는 것도 큰힘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통제력이 이완 되어 갔을 때 절도사의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한 무령군 소장이라는 군대의 힘은 재당신라인의 생활 즉 무역활동 등에 영향을 주었고 재당신라인사회를 통괄하고 있었던 장영.유신연등을 수하로 둘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장보고의 활동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무령군 소장을 그만 두었을 때 이미 체계화 되어있었던 재당 신라인 상인사회를 관장하면서 교역활동을 활성화 해갔을 것이다. 본고에서 서술하고자했던 가장 중요한점은 장보고의 청해진 설진문제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기연구자들의 견해가 모두 각각이며 때로는 전혀근거없는 견해를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장보고의 해상세력배경은 재당신라인



상인 사회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시대적 배경으로서 나타난 당의 개방정책은 초주, 연수현, 광주, 명주 등지의 교역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겠다. 이러한 시기 신라의 발달한 산업구조와 풍부한 교역품을 확보할 수 있는 청해진으로의 이동은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는 해상무역의 전진 기지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 되어지는 것은 무령군이라는 절도사의 군대조직으로부터 물러났다는 것은 장보고의 귀국동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주장하려는 것은 장보고의 귀국동기가 단순히 해적퇴치를 위한 의분심 때문만은 아니며 단지 그것은 청해진을 근거지로 한 새로운 해상활동의 구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자료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필요로 할 뿐이며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나갈 것이다.



